

21대 국회 막판까지... 여야, 특검법·연금개혁 합의 불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의 안건을 김 의장 주재로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합뉴스

민주, 단독 개의 예고... 여야 원내지도부, 추가 협의 전망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의 안건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김 의장 주재로 1시간 가량 만나 이야기를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쟁점 법안 처리는 22대 국회로 넘겨 논의를 이어가고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한다면 28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방침이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28일) 본회의와 관련해 저는 무리한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 의사일정 자체를 합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일 반드시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서 채해병 특검법 제외 처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13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대한 합의의 위해 노력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21대 국회 막바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국민연금 개혁 법안 처리를 두고도 이날 회동에서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김 의장은 여야가 접점을 찾은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만이라도 먼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거듭 제안했지만, 국민의

힘은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겨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과 관련해 서로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며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했다, 22대 국회가 곧 시작되니까 그때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잘 진행해보자는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모수개혁에 대해 민주당이 통 크게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했음에도 합의를 이뤄내 처리하지 못하는 게 많이 아쉽다"며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추 원내대표께 합의를 위한 노력을 더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민주당이 단독 개의를 예고한 28일 오후 본회의의 전까지 추가 접촉을 갖고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개헌 논의·대통령 임기 단축 열어놔야"

나경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 초청 토론 참석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은 27일 차기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뿐 아니라 개헌 논의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당선인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22대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소임은 사회의 료를 새로 정립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같은 개헌론에 '야권이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도 포함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개헌 논의 때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의 유력 정치인 가운데 전면적인 개헌을 이처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근래 없었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절반 넘게 남은 상황에서 다소

이례적인 발언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

나 당선인은 21대 국회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첫 단추라도 끼워야 하지 않나"라며 여야가 접점을 찾은 모수개혁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만이라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올해 안에 구조개혁(기초연금과 연계·통합, 자동안정장치 도입 등)까지 모두 한 번에 끝나는 게 좋지만, 실질적으로 국회 원구성이 녹록지 않고 여러 대립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상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국힘, 연금개혁 미루자고 고집"

민주당 최고위... "내일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 처리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이번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반드시 매듭지어야 함에도 여당과 정부는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하고 있다"며 "무작정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지는 것은 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소리와 마찬가지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미뤄야 하나. 이번에 마무리 위원회 구성 등으로 1년이 지나가고, 곧 지방선거와 대선이 이어질텐데 연금 개혁을 할 수 있겠나"라며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44%로 하는 여당 안을 수용했다. 부족하다라도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는 반쯤이라도 나아가는 게 낫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야당의 양보로 여야 의견이 일치된 모수개혁부터 처리하면 된다. 이조차 거부하는 것은 말로만 연금 개혁을 얘기하며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것"이

라며 "여야가 당장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9일 별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반대편에서는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하는 시민사회가 '소득대체율 44%'안 수용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며 "우리는 잘 알지만 이대로 끝이 아니다. 22대 국회에서 2차 개혁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모두를 한 번에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니 중요한 안부터 해결하면 좋겠다"며 "17년 만의 연금 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추미애, 법사위 아닌 국방위 활동 예고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선이 27일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병대 채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당시 윗선의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 당선인은 "박 대령을 위해 기도한다"며 "더디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외롭더라도 한 가닥 진실

이 거대한 정의의 물결을 만들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불의한 권력의 침묵 카르텔, 더러운 탐욕의 도가니를 용인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온 박 대령을 국민이 지키자"며 "채해병 순직은 부패 독재 권력의 풍토가 한 젊은 생명을 무참하게 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당선인은 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를 만에 숨진 사건을 두고도 "무지·무식·무도한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윤 정부 조세정책, 전형적인 부자감세 기조"

안도걸 광주 동남을 당선자



또 "이번 총선에 국민들은 정부의 경제 실패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며 "저출생·지방소멸의 위기 극복과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미래 산업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동남을) 국회의원 당선자는 27일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간의 조세정책은 안정적 세수 확보, 과세형평성,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등 과세원칙과 배치되는 전형적 부자감세 기조였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조세·재정분야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안 당선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실패에 대한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전환 추진"을 요구한 뒤 "윤 정부는 지난 2년간 법인세 인하, 중부세 완화, 주식양도세 완화, 금투세 폐지 추진 등을 통해 적극적 부자감세를 해왔고 이것이 건축재정과 맞물려 역대급 세수 결손, 소득분배 악화 및 경기 침체 장기화라는 심각한 경제적 문제점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안 당선자는 "퇴행적 조세정책을 바로잡고, 특히 세수 결손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자감세 항목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조세 형평성과 정부 정책의 일관성, 국제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며 세계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안도걸 당선자는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경제전문가이며, 첫 상임위로 기획재정부위원회 활동을 희망했다.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